

고려인마을 해설사·통장단 경로당 찾아 위로

관광해설 넘어 이웃 돌봄까지... 주민관광청 따뜻한 봉사 눈길



고려인마을 주민관광청 소속 해설사들과 월곡2동 통장단이 지난 11일 마을 관내 10개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따뜻한 정을 나눴다.

'역사마을 1번지' 광주 따뜻한 공동체의 온기가 고려인마을에 선주민과 이 퍼지고 있다.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광주 고려인마을에 따

면, 고려인마을 주민관광청 소속 해설사들과 월곡2동 통장단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11일 마을 관내 10개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동시에, 마을공동체 간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화합의 공동체 문화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해설사들과 통장단은 조를 나눠 경로당을 직접 찾아 도토리묵과 과일, 음료 등을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살폈다. 또한 어르신들과 마주 앉아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정겨운 대화를 나누며 따뜻한 말벗이 되어드렸다.

경로당 어르신들은 "직접 찾아와 안부를 물어주고 이야기를 나눠주니 큰 위로가 된다"며 환한 웃음으로 고마움을 전했다. 일부 어르신들은 고려인마을 해설사들의 손을 꼭 잡으며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는 마음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현장을 더욱 훈훈하게 만들었다.

주민관광청 해설사들은 평소 고려인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고려인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이날만큼은 지역 어르신들의 손을 잡고 이웃의 정을 나누는 따뜻한 봉사자로 나섰다.

주민관광청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관내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마음을 나눈 이번 행사는 단순한 위문 활동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가까워지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文載 이 박 행 목사
복내천인사유센터 원장
한국교회생명신학포럼 총무
예장합동 기후환경경위대응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1880년 전란 나주에서 태어난 오방 최홍목사는 한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낸 실천적 신앙인이었다. 그는 목회자이자 선교사였으며,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가로 살았다. 또한 시민사회운동가로서 가난하고 병든 이들의 곁을 지켰고, 평생 한센인들과 함께하며 '한센인의 아버지'라 불렸다. 전남의과대학 설립에도 헌신했던 그는 신앙이 교회 안의 언어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시대와 인간의 고통 속에서 살아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을 삶으로 증언한 인물이었다.

그의 삶은 언제나 가장 낮은 곳을 향해 있었다. 그는 교회를 울타리 안에 가두지 않았다. 거리와 시장, 병든 사람들의 지리와 시대의 눈물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버려진 사람들의 손을 붙들고 함께 울었으며, 사회가 외면한 이들의 존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말보다 삶으로 복음을 증언했고, 사랑의

회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지만, 그 빛이 정말 가장 어두운 곳을 향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돌아보아야 한다.

오늘의 시대는 사랑을 숫자와 효율로 평가한다. 교회 역시 그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출석 인원과 헌금, 건물의 규모와 조직의 성장으로 목회의 성공을 판단하려 한다. 그러나 교회는 숫자로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다. 한 영혼의 아픔 앞에 함께 울 수 있을 때, 비로소 교회는 교회가 된다. 큰 교회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오방의 삶은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을 보여준다. 교회는 세상 위에 군림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세상을 품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예수께서 병든 자와 가난한 자, 버려진 사람들의 곁으로 먼저 가셨듯이 교회 역시 가장 낮은 자리로 걸어가야 한다.

서거 60주기, 최홍목 오늘의 교회를 향해 묻다

추상적 언어가 아니라 실천의 방식으로 살아냈다.

1966년 5월 14일, 그는 100일 금식기도 끝에 생을 마감했다. 그의 마지막 길은 전라남도 역사상 최초이자 마지막 사회장으로 치러졌다. 당시 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졌고, 수많은 광주시민들이 구름 떼처럼 몰려와 그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다. 무엇보다 평생 그와 함께 살아왔던 한센인들은 "아버지를 잃었다"며 목놓아 울었다고 전해진다. 그것은 단순한 애도의 장면이 아니었다. 한 인간이 평생 누구의 곁에서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마지막 증언이었다.

오늘 우리는 이 장면 앞에서 다시 질문하게 된다. 왜 사람들은 그의 죽음 앞에서 그렇게 울었는가. 왜 가장 낮은 자리의 사람이 그를 자신의 아버지라 불렀는가. 아마도 그는 단지 설교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아픔 속에서 함께 살아낸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의 한국교회는 어디에서 있는가. 교회는 성장했지만 세상은 왜 점점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는가. 화려한 건물과 거대한 조직은 많아졌지만,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곁에는 왜 교회의 지리가 보이지 않는가. 우리는 교

복음은 높은 곳에서 선포되는 권력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함께 살아내는 사랑이기 때문이다.

특별히 오늘의 목회자들은 권력의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 목회는 사람 위서는 지리가 아니라 사람 아래로 내려가는 지리이다. 직분은 자신을 높이는 명예가 아니라 자신을 비우는 십자가여야 한다. 만일 교회가 세상의 권력과 경쟁하기 시작한다면, 교회는 어느 순간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광주와 호남은 오랜 시간 아픔과 저항, 나눔과 공동체 정신을 품어온 땅이다. 오방의 삶 역시 이러한 정신과 깊이 맞닿아 있다. 그는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라 시대의 고통을 함께 짊어진 실천적 신앙인이었다. 그렇기에 그의 삶은 특정 시대의 미담이 아니라 오늘 한국교회 전체가 다시 붙들어야 할 살아 있는 공공의 유산이다.

지금 우리 시대는 더 많은 프로그램보다 더 깊은 사랑을 필요로 한다. 더 화려한 언변보다 진실한 삶을 필요로 한다. 교회는 다시 사람에게로 돌아가야 한다. 다시 가장 낮은 자리로 걸어가야 한다. 다시 시대의 눈물 앞에 응답해야 한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순천제일교회, 광주기독병원에

헌혈증·소아중증환자 후원금 전달

순천제일교회가 부활절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한 '피로 회복' 캠페인을 통해 모아진 헌혈증과 소아중증환자를 위한 후원금 300만 원을 광주기독병원에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치료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아중증환자와 가족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기 위

해 마련됐다. 순천제일교회 성도들은 생명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며 자발적으로 헌혈증 기부에 동참해 따뜻한 마음을 모았다. 광주기독병원은 전달받은 후원금을 소아중증환자의 치료 지원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헌혈증 또한 환자 치료에 소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이승욱 병원장은 "어려운 이웃과 아픈 아이들을 위해 귀한 사랑을 실천해 주신 순천제일교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생명존중의 가치를 나누는 따뜻한 나눔 문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제일교회가 '피로 회복' 행사를 통해 마련한 헌혈증과 소아중증환자를 위한 후원금 300만 원을 광주기독병원에 전달했다.

광주기독병원,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선정

보건복지부 공모 선정, 지역거점 의료기관 입지 다져

광주기독병원(병원장 이승욱)이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

이번 지정은 심뇌혈관질환자의 전문 치료와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사업으로, 광주기독병원은 이번 선정을 통해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되었다.

광주기독병원은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 10년 연속 1등급 ▲심혈관중재시

술 및 뇌졸중 시술 인증기관 ▲전용 중환자실과 전용 병상,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전문 간호인력 배치 및 집중 치료를 위한 독립된 치료 환경 등을 갖추고 있다. 또한 뇌와 심장 혈관을 동시에 정밀 촬영할 수 있는 영상 장비와 MRI·CT 24시간 운영 체계를 기반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며, 순환기내과·신경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 전문의로 구성된 전담 진료팀이 협진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혈전제거술, 색전술 등 고난도 중재시술을 포함한 즉각적인 치료 역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급성심근경색 대응 건수 증가를 통해 지역 내 심혈관 응급 대응 체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지정은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보다 촘촘한 의료 안전망이 구축되었음을 의미한다. 광주기독병원은 24시간



광주기독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

365일 전문 진료 체계를 기반으로 급성기 치료는 물론 재활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까지 연계한 지속 관리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119 구급대, 인근 중소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환자 발생 시 최적의 이송 경로를 확보하고, 적시에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 심뇌혈관질환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농어촌·미자립교회, 군·경선교 및 기독교 선교기관에

미션리 신문을 보냅니다

밝은 크리스천 따뜻한 세상 을 추구하는 미션 21이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각 선교단체, 군부대, 교도소, 소년원 등에 신문 보내기 운동을 펴고 있습니다. 지역복음화와 크리스천 문화 창달을 위해 복음과 함께 교계의 소식을 담아 매주 발행되는 미션21 신문보내기 운동에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2026년 7월 창간 27주년을 맞게 되는 미션21이 이제 문서선교의 보다 넓은 영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CMS에 가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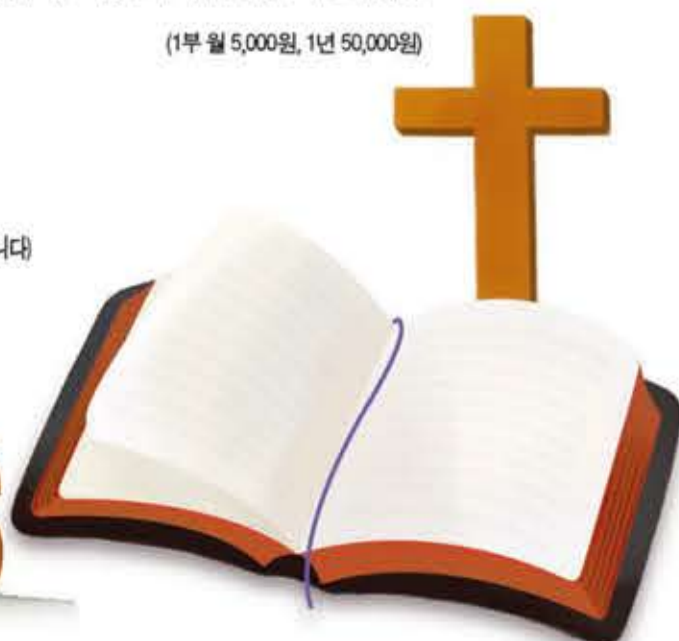
(1부 월 5,000원, 1년 50,000원)

① 정기후원: CMS 가입

- 미션21 홈페이지(ms21.tv)에서 CMS 가입
- CMS 신청서 작성 후 반송봉투에 넣어 신문사로 우송
- ※신문사로 연락주시면 반송봉투가 들어있는 CMS신청서를 지택으로 보내 드립니다

② 일시후원: 계좌이체

- 농 협: 301-0090-0060-71 예금주: (유)미션21



직접하신 후 휴대전화로 찍어서 카톡이나 메일로 보내주세요. C.P: 010-4802-7824 / e-mail: ph2930@nate.com

미션리 정기구독 CMS 출금이체 신청서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복음 따운 신문 미션21이 군부대, 소년원, 교도소, 도시 및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도서벽지에 전달될 수 있도록 문서선교에 동참해주세요.

신청인 정보	
성명:	
전화번호:	
주소:	
신청일자:	
계좌정보	
은행명:	
예금주:	
지정출금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알 6자리만) 또는 사업자번호:	
금액(매월)	<input type="checkbox"/> 5,000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원 ()부
출금일	<input type="checkbox"/> 5일 <input type="checkbox"/> 15일 <input type="checkbox"/> 25일 <input type="checkbox"/> 기타 ()일
우원기관	<input type="checkbox"/> 법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

위와 같이 출금이체거래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또는 서명

정통 기독교 주간신문 미션리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 69 (동신빌딩 3층)
전화: 062367-9100, 364-9100 / 팩스: 062367-9108

◆ 급성기재원보의 책임임에서 ◆
본 신문의 관여에 관하여 다른 금융기관에서 제공된, 사설, 권, 계약조건을 출금계좌를 신의신용에 의존하여 개인신용 책자의 정기 수신자에게 발송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당국 및 제 및 비당당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용이합니다.
202 년 5 월 15 일 또는 서명